



### 순창군·전주 푸른안과의원, 농촌사랑 동행 순창 협약

순창군은 최근 전주에 위치한 푸른안과의원과 도농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 사회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농촌사랑 동행 순창'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푸른안과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김영식 순창부군수, 유태영 원장, 그리고 선운숙 순창 밭발 테마파크 대표 등 양 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교육과 워크숍 지원, 농촌 관광을 통한 도농 교류 촉진, 지역 사회 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양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과 지속 가능한 교류를 약속했다.

유태영 원장은 "협약을 기점으로 상호 우호 증진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과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져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식 순창부군수는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이 단순한 행사로 그치지 않고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상생 발전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대산면, 1일 1가구 소통행정 추진

남원시 대산면은 관내 취약계층 및 주민을 면밀히 찾아가는 1일 1가구 소통행정을 추진, 대민 행정의 확대를 통해 각 가정의 생활 전반을 살피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좀 더 촘촘한 주민복지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대산면에서 추진하는 특화사업인 행복 들판 사랑 케이크 사업은 혼자 생활하고 계시는 어르신을 생신일에 찾아가 케이크와 생필품을 전하며 축하와 안부 확인을 하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많아 높은 만족도를 보여 2023년 하반기부터 지속해서 추진하는 특화사업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무주소방서, 투·개표소 화재안전조사 실시

무주소방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관내 투·개표소 15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개표소 화재안전조사는 군민의 안전하고 원활한 투표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종점 점검 사항은 △시설 내 위험요인 사전 제거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작동 확인 △피난·방화시설, 비상구 개방 등 대피시설 확보 △관계인 소화기 사용법 교육 등이다.

또한 소방서는 선거 전날 오후 6시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특별경계근무 기간으로 지정하여 소방력 전진 배치 및 예방순찰 강화로 선제적 재난 대비에 임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천연물 기반 안구질환 예방·치료제 기술이전

전북대 김정현 교수 천연물 관련 노하우 집약… 바이오스트림에 기술이전 상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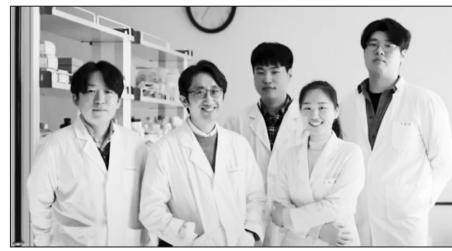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손정민)이 보유하고 있는 '식나무 활용 안구질환 예방 및 치료' 기술이 바이오 분야 유망 기업인 '바이오스트림'에 기술이전 돼 상용화된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술은 김정현 교수(치의학과)의 천연물 관련 노하우가 집약된 것으로, 최근 안구 질환의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 자생중인 식나무에서 추출한 성분을 활용해 안구건조증과 황반변성의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한 부작용이 적고 효과는 향상된 안구질환 예방과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이다.

기존 안구 질환 예방에 주로 활용된 투테인과 오메가-3는 미미한 예방효과로 인해 의약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식나무 추출물은 국내 자생 식물을 활용해 국내 생산이 가능하며, 건조증상 완화, 염증 개선, 시세포 활성 및 순장 감소, 맴막증 두께 감소 등 안구 질환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 강점이다. 기존 원료는 성분의 한계로 인해 제형이 제한적이었으나 식나무 추출물은 점안제 뿐만 아니라 국소, 경피, 경구 투여가 가능한 다양한 약학적 조성을까지 개발 가능해 안구 질환에 범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정현 교수는 생체 내(in-vivo), 생체 외(in-vitro) 실험뿐만 아니라 기술사업화의 다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료의 GMP 생산, 안전성 시험(GLP 독성시험), 지표



성분 분석(시험성적) 등을 통해 기술의 사업화를 가속시키고, 기술상속도(TRL)를 꾸준히 향상시켜 많은 기업으로부터 관심을 받아왔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바이오스트림은 2000년 설립 이래, 바이오테크 핵심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으로 건강 기능식품, 제약 등의 바이오 산업 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의 바이오 엔지니어링 사업분야까지 선도하고 있다.

손정민 단장은 "이번 기술이전은 대학의 우수 기술이 유망 기업을 통해 사업화로 이어지는 Lab-to-Market의 대표적인 모델"이라며 "전북대의 글로벌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구축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주력산업 분야인 바이오 분야 기술의 창출과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제너럴바이오, 남원 송동면에 생활용품 후원

남원시 송동면은 지난 26일 사회적 기업인 제너럴바이오에서 관내 취약계층 및 주민을 위해서 생활용품(유화비누, 세탁세제) 5,000개(환가액 1,000만원)를 면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제너럴바이오(주)는 지난 2007년 설립된 사회적 기업으로 기능성 원료와 바이오 신소재 물질을 개발하며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생활용품을 후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정훈 제너럴바이오 대표는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리는 마음에서 후원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전했으며, 노일환 송동면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과 주민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서정훈 대표님에 감사하다"고 감사를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안성피출소, 농번기 교통사고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무주경찰서 안성피출소(소장 유선화)가 바빠진 영농철을 맞아 농번기 교통사고 및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유선화 소장은 지난 25일 안성행정복지센터 강당에서 열린 마을이장단 회의에 참석, 마을 이장단을 상대로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사례 등을 적극 홍보하고,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경운기, 트레터 등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각 마을을 둘러 농기계 등에 고화도 반사지를 부착하고, 노인일자리 현장을 찾아 노인 교통사고 및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안전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고창경찰서, 국회의원선거 선거경비상황실 운영

고창경찰서(서장 한도연)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7일부터 '선거경비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선거 경비 체계에 돌입했다.

선거경비상황실은 경찰서장이 총지휘하며,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신속한 보고 및 전파체계를 구축하고, 신속대응팀을 운용하여 즉응태세를 확립, 각종 상황발생 시 총력·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장수경찰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개최

장수경찰서(서장 김홍후)는 27일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두루두루 안심·지킴이 범죄예방·대응 전략회'를 2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홍후 서장을 비롯한 각 과장 및 계·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각 기관별 주요 범죄분석 및 범죄예방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Pre-CAS(범죄위험도 예측 분석시스템)과 GeoPros(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활용해 치안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데이터를 기반한 범죄예방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장수경찰서는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해 맞춤형 범죄예방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